



질적으로 악화된 미국의 3/4분기 경제성장률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1월 29일 미 상무부는 3/4 분기 GDP 성장률이 잠정치인 2.0%보다 0.7%p 상승한 2.7%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, 이는 2/4 분기 GDP 성장률 1.3%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임.

- 3/4분기 GDP의 큰 폭 증가는 정부지출, 수출, 주택건설 부문이 양호하게 나타났고, 특히 기업재고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.
- 그러나 소비지출은 잠정치인 2.0%보다 0.6%p 하락한 1.4%를 기록, 2/4분기 성장률인 1.5%를 하회하였으며, 설비투자도 잠정치 1.3% 감소보다 악화된 2.2%의 감소를 기록하였음.
- BMO Capital Markets의 Sal Guatieri는 소비지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4/4분기 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, 태풍 '샌디'의 영향과 '재정 절벽(fiscal cliff)' 우려 등도 4/4분기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
■ 한편 10월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11월 제조업 지수가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10월 건설지출과 주택매매지수가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감.

- 11월 30일 미 상무부는 10월 소비지출이 전월대비 0.2%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, 미국 공급관리자협회(ISM)가 발표하는 11월 제조업지수도 전월대비 2.2포인트 하락한 49.5로 2009년 7월 이후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.
- 반면 12월 3일 발표된 10월 건설지출은 전월대비 1.4% 증가한 연환산 8,700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임.
- 11월 29일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(NAR)도 10월 주택매매 지수가 전월대비 5.2% 상승한 104.8를 기록하였다고 밝히는 등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 2012년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
(LA times 등, 11/29)